

다산포럼



임형택
성균관대 명예교수

과거의 역사를 되짚어 보면 어처구니 없고 안타까운 일들을 종종 발견할 수 있다. 그런 일들 가운데 하나로서 나는 이가환(李家煥)과 정조 사이에 있었던 일화를 떠올린다.

한국 실학의 중주인 성호(星湖) 이익(李翼)의 종손자이기도 했던 이가환은 정조 치세에서 공조판서를 역임한 고관이었다. 학식과 총명이 대단해서 다산도 경탄해 마지않았던, 가히 천재였다. 정조는 그의 지적 능력을 알아보다 중용하였는데 그 때문에 적대 세력의 질시를 온몸에 받았다. 결국 정조 사후 일어난 신유옥사에 걸려들어 가혹한 고문을 당한 끝에 죽었다. 신유옥사란 이단 사교를 뿌리 뽑는다는 명분을 내세웠으나, 실은 정치적 반대파를 제거하기 위해 일으킨 터무니없는 사건이었다. 그런데 어처구니 없기로 말하면 바로 앞서 있었던 일화가

18세기 과학에 밝았던 관료의 비운

훗날 더해서 안타깝기 그지없는 일이었다.

이가환은 참으로 박식해서 수리 기하와 천문 역상(曆象) 등에도 공부가 깊었다 한다. 정조는 수리와 역상을 종합한 이론서가 꼭 필요하다고 보아 이가환에게 이 방면의 전문 서적을 편찬하도록 지시했다. 그는 임금께 “오즈음 시류가 분별이 없어 수리가 무엇인지 교법(敎法)이 무엇인지 구분을 못하고 혼동하여 꾸짖고 야단들입니다. 이런 책을 만들다가는 신에게 비방의 소리가 쏠아질 뿐 아니라 성덕에도 누를 끼칠까 두렵습니다”라고 아뢰었다. 이후 이 일은 더 이상 진전되지 못했다.

다산은 이가환의 억울한 죽음을 후세에 알리기 위해 지은 전기적인 글에서 이 일화를 특기하면서 “성상께서는 꼭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다”는 언급을 붙여 놓았다. 실학 군주로 일컬어지는 정조의 태도로 미루어 수리 역상을 다룬 이론서를 편찬해 내겠다는 의지를 접지 않았던 것 같다. 허나 유감스럽게도 바로 이듬해 정조는 세상을 떠났고 이내 신유옥사가 일어났다. 그리하여 다산은 18년간의 귀양살이를 해야 했고 이가환은 참혹하고 억울한 죽임을 당한 것이다. 해서 천재 이가환의 시문만 약간 전해질 뿐 깊은 공부가

있었던 수리 역상의 저술은 가무뎀이 사라지고 말았다.

동아시아 한자권이 서양을 만나서 교류가 시작되면서 등장하게 된 말의 하나가 '서학'이다. 이때 서학은 서양의 학술과 서양의 종교를 싸잡아서 쓴 표현이었다. 위 이가환의 발언에서 '수리'는 학술에 속하는 것이고 '교법'은 종교에 속하는 것임을 오늘날에 와서는 분간 못할 사람이 없다. 그야말로 개념 없이 사실 분간도 못하는 시류 때문에 실학 군주의 안목으로 모처럼 기뻐한 학문 프로젝트가 첫발도 내딛지 못하고 좌초된 것이다.

서양에서 들어온 종교 신앙에 대해 사교라는 이름으로 물리적 폭력을 쓴 당국자의 조처가 부당한 행위였음은 물론이다. 게다가 정치적 반대 당파를 숙청하는 수단으로 이용해서 허위 날조까지 일삼았던 사실은 더더욱 악이었다. 그에 앞서 있었던 편찬 기획이 좌초되고 만 일은 당시 조용히 넘어가긴 했지만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그에 못지않게 근본적인 문제점이었다.

수리는 자연의 자재(自在)한 이법이고 역상은 전체 운동을 관측하는 학문이다. 이런 과학 지식은 그 자체로서 추구할 가치가 지대하니 역법은 거기서 도출

된 것이었다. 한자권에서도 예로부터 이에 대한 추구가 있어왔지만 서양 근대에 달성할 수준은 이쪽에 견주어 밀등했다. 동서가 열린 초기에는 이 점을 인정하고 접수하려는 노력이 없지 않았다. 대표적 인 사례를 들자면 17세기 이래 통용되었던 시헌력(時憲曆)이다. 동양을 압도했던 서서양의 기술과 무기 또한 과학 기술에서 응용되었던 성과가 아니었던가. 개념 없이 실제적 진실을 무시하고 호도한 문제점은 실로 어처구니없을 뿐 아니라 더없이 안타까운 노릇이었다.

이 같은 문제는 220년 전에 있었던 일이다. 그런데 과거사에 그치지 않고 오늘날의 한국 현실에서도 이러한 문제는 유사하게 확대 재생산이 되고 있다. 실제적 진실을 무시해 버리고 개념 없이 마구 뱉어 내는 언설과 종적없는 막말, 오르내리는 댓글들, 가짜 뉴스들이 지금 얼마나 범람하고 있으며, 문제의 심각성은 어떻게 증폭되어 가고 있는가. 이념적 뒷걸음 해 서 사람들을 현혹하는가 하면 당파적 이익에만 몰두해서 세상을 오도시키려고 아단부석이다. 이런 와중에 휩쓸려 민족사의 중대한 과업인 남북통일이 디로 빠져들지, '촛불 혁명' 이후 진행되는 민주주의를 어떻게 망칠지 자못 걱정스럽기도 하다.

NGO칼럼

무등산 정상부 전기 버스 운행 논란을 보면서



최지현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얼마 전 제주 거문오름을 탐방하였다. 사전예약을 한 사람에게 한해서 정해진 시간에 해설사의 안내를 받고 입산할 수 있었다. 매주 화요일은 자연휴식의 날로 탐방이 불가능하다. 탐방객 수를 철저히 제한하고 있고, 음식은 반입은 물론이고 짐을 씌어서도 안 된다. 휴여 짐과 짐을 뺐어 생태환경이 훼손될까 걱정하는 조치다. 우산을 써서도 안된다. 우산이 나뭇가지를 꺾을 수 있기 때문에 우천시에 비옷을 입고 탐방을 해야 한다. 탐방로는 대부분이 바닥에서 띄워진 데크로 연결되어, 탐방객이 땅을 밟지 않도록 하고 있다. 교육적 효과와 힐링은 기본이었고 차근차근 걸어 올라가며 각지에서 온 탐방객과의 인사 기회는 덤이었다. 유쾌한

해설사의 안내가 탐방의 즐거움을 더했다. 무엇보다 거문오름을 아껴가며 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인상 깊었다. 매우 귀하고 가치가 높은 곳이었으나 하는 생각을 절로하게 된다. 그리고 더욱 조심하게 된다. 거문오름은 2007년에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되었다. 만장굴 등 용암동굴계와 연계된 특이점을 비롯하여 다양한 생물종이 서식하는 자연성이 주목받았던 것이다. 이것 때문이라도 제주를 더 찾고 싶어지는 것은 아닐까. 한라산, 바다, 오름, 난대림숲, 지질자원 등 다양한 자연 자원이 있고, 육지에서는 절대 경험할 수 있는 문화와 정서, 희소성과 차별성이 유혹하는 것일 것이다. 철저히 보호받는 귀한 존재들이 제주를 제주답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광주전남에는 무등산이 있다. 무등산이 국립공원으로 승격 지정되고 무등산을 포함한 광주, 담양, 화순지역이 세계 지질공원으로 인정되면서 지역의 자긍심도 상승했다. 우리는 이 자긍심의 존재를 우리는 보호하고 아끼는 노력을 하고 있는가. 광주시와 일부 시의원 등은 무등

산 정상부까지 전기버스가 승용차를 활용하여 탐방객을 쉽게 정상부에 접근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한다. 무등산을 널리 알리는 방안이라 하는데 무등산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렇거나 무등산을 알린다는 취지인지 의아하다. 작년 기준으로 무등산은 22개 국립공원중에 탐방객수 순위로는 3위안에 있다. 장애 이나 사회약자, 취약층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전기차 운행이 필요하다고도 한다.

유원지, 휴양 위락지라면 접근성에 차별이 없어야 하지만, 보전이 목적인 국립공원 방향에서는 어긋난 의견이다. 최근 일부 단체가 세계 수명연수권 대회가 무등산을 알릴 기회라며 정상부 전기 버스운행을 요구하고 있다. 환경부와 국립공원단은 세계수명연수권대회 기간에 한한 일시든 임시든 무등산탐방로를 차 도로 활용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노폭 확대, 선형 개량, 포장 등 정비 교행, 배수, 안전 문제를 보았을 때 훼손이 불가피하며 버스운행 불가입장을 이미 냈다. 지역활성화, 전기버스 홍보, 취약층에 대한 고려는 중요한 의제이다.

그러나 무등산 정상부까지 이어지는 전기차 혹은 차량 운항의 이유가 될 수 없다. 일시적으로 방문하는 외국인인을 위해서 국립공원 관리의 기본과 원칙을 깨야 할 이유가 없다.

작년 광주 세계인권도시포럼 참석차 광주에 온 독일 손님은 개인 시간을 내어 스스로 무등산을 탐방하더니, 직접 찍은 무등산 사진과 함께 광주에 초청해준 것에 감사하듯 문화를 보내왔다. 중심사를 방문하고 중대리제 아래계까지 올랐던 것 같은데 무등산 답사를 매우 감탄해 마지않았다. 이미 무등산 접근과 탐방을 위한 기반은 충분하다. 담양, 화순까지 아우르는 무등산권지질공원, 사할 및 가사문화권 등 문화유산, 지역의 생활 문화가 무등산, 광주전남의 매력을 높이고 있다. 외국인에게 무등산권 자산을 알릴 내용이 무궁무진하다.

지금 주요하게 살펴야 할 것은 정상군부대 이전과 복원 등 각종 시설로 훼손된 구간을 건강하게 복원하는 일이다. 또한 무등산이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현 탐방객수가 과잉이 아닌지 점검해야 시점이기도 하다.

社說

다가오는 '쓰레기 대란' 보고만 있을 것인가

광주 지역 쓰레기로 만들어진 고�형 폐기물 연료(SRF)를 사용하던 나주 열병합발전소의 가동 중단이 장기화하면서 '쓰레기 대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고�형 연료 제작이 중단된 상황에서 민간 시설에서 소각 처리되는 쓰레기보다 배출량이 훨씬 많아 한계점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광주에서 종량제 봉투에 담겨 배출되는 쓰레기와 재활용이 힘든 잔재물은 지난 2017년부터 모두 광주 양과동 SRF 제조 시설로 보내졌고, 이 가운데 불에 잘 타는 것들만 선별해 고�형 연료로 제작됐다. 이 연료는 사업자간 계약에 따라 2018년 1월부터 나주 열병합발전소에 공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2017년 말 나주 열병합발전소 시험 가동 과정에서 주민들이 오염 물질 배출 의혹을 제기하면서 강력히 반발해 정상 가동이 무기한 연기됐다. 광주 SRF 시설 역시 고�형 연료를 만들어도 보낼 데가 없어진 탓에 가동이 중단됐다. 이로

인해 광주에서 생산된 1년 치 고�형 연료 6만t은 현재 장성의 한 물류창고 야적장에 임시 보관 중이다.

나주 SRF 발전소 가동 연기에는 정부의 정책 변화도 영향이 컸다. SRF 관련 시설을 장려했던 정부가 최근 SRF의 신재생 에너지 인증 비중을 축소하면서 관련 시설이 설 자리를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재활용품 가운데 오염물이 묻어 재활용되지 못하는 페비닐·플라스틱 등 잔재물은 민간 업체들이 처리할 경우 비용이 5배가량 급증해 수거 업체들마저 거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려면 정부가 SRF의 환경오염 물질 배출 기준에 대한 안전성을 직접 검증해 나주 주민의 불안을 잠재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광주 지역 쓰레기 대란이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간 만큼 정부와 광주시, 전남도와 나주시가 보다 유기적으로 협력해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한전공대 설립 관련 법 개정도 서둘러야

'제2의 포항공대'를 목표로 한 한전공대 건립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받지 않는다. 이에 따라 한전이 이사회에서 한전공대 출연을 결정하면 곧바로 한전공대 설립 절차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 그만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 당초 계획된 2022년 개교 가능성이 커졌다.

법제처는 최근 한전공대 설립을 위한 한국전력의 출연이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인 '신규 투자사업 및 자본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앞서 기획재정부는 올 초 법제처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전력의 한전공대 출연이 예타 조사 대상인 '신규 투자사업 및 자본출자'에 해당하지는 않는지를 질의한 바 있다.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신규 투자사업 및 자본출자는 예타 대상이며 총사업비 1000억 원 이상, 국고 지원액과 공공기관 부담액을 더한 금액이 500억 원 이상인 사업도 예타 대상이 된다. 그러나 법

제처 판단을 가른 건 수익사업 여부였다. 수익사업은 손실 가능성을 먼저 따져 봐야 하기 때문에 예타를 받아야 하지만 비수익사업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사회 심의·의결과 함께 사전 협의 절차만 거쳐도 추진이 가능할 수 있게 돼 한전공대 건립 사업은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예타 대상이 되면 1년이 넘는 예타 기간만큼 사업이 미뤄지는 데다 예타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에 사업은 더 연기될 수밖에 없었다기 때문이다.

이제 한전과 전남도 등은 6월 초로 예정된 '한전공대 범정부 지원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다른 정부부처의 관련 현안도 신속하게 마무리 지어야 한다. 한전공대 설립을 위해서는 고등교육법 및 대학설립운영 규정 개정, 한전공대 설립을 위한 특별법·일반법 제정 또는 관련법 개정 등이 시급하기 때문에 향후 차질이 없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無等鼓

"뿔뿔이 맑은데/아랫물이 맑지 않으니 / 이견 아니지/ 이견 절대 아니라고/ 거꾸로 뒤집어 보기도 하며/ 마구 흔들며 마시는 / 서민의 술/ 막걸리."

'문화양조장'

함민복 시인의 시 '막걸리다'. 쌀과 누룩으로 빚는 막걸리는 농주(農酒) 혹은 탁주(濁酒)로도 불린다. 재료 못지않게 사용되는 물과 빚는 이의 정성이 술맛을 좌우한다. 그래서 와인처럼 막걸리는 지역 차가 있다. 요즘엔 지역 농·특산물을 첨가한 이색 막걸리도 출시돼

등주조장은 1950년대 말부터 막걸리를 빚어 온 술도가 즉 양조장(釀造場)이었다. 그러나 맥주와 소주의 소비 증가로 경영난을 겪으며 지난 2010년 끝내 문을 닫았다. 수년간 방치됐던 이곳은 2016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진행하는 '예산업시설 문화 재생 사업' 대상으로 선정되면서 새로운 전기(轉機)를 맞았다.

그렇게 해서 담양 해동 주조장은 복합 문화 공간인 '해동 문화예술촌'으로 변모했다. 지난 주말 찾은 예술촌은 소박한 양조장의 모습을 살리면서

서도 현대적이고 멋들어진 전시 공간으로 탈바꿈해 있었다. 이곳에서 8월 4일까지 기획적인 '도시 리듬과 예술적 행동전'이 열린다. 관방제림과 죽녹원, 메타세쿼이아 길 등 생태관광 이미지에서 나아가 담뱃배 술창고와 같은 문화 예술로 '웃'을 갈아 일으키려는 담양군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앞으로 '해동 문화예술촌'이 맥주공장에서 복합 문화 공간으로 바뀐 독일 '쿨투어 브라우어리' (Kultur Brauerei)와 같은 '문화 양조장'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송기웅 문화2부장 song@

기고

숨겨진 독립 운동가, 문헌 역사를 찾아서



손예빈
소설가

광주시 양림동에는 대저택이 있다. 이 저택의 원래 주인이 흥학관을 짓고 운영했던 최명구(1860-1924), 최상현(1880-1945) 부자라는 것을 알고 큰 감동을 받았다. 흥학관은 민족 계몽 운동과 독립 운동의 요람으로서 일제 강점기 지역 사회에 햇볕과 같은 역할을 했다.

그런데 흥학관에 대해서도, 흥학관을 짓고 운영했던 최명구 최상현 부자에 대해서도 아는 이가 많지 않은 것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필자는 소설 '호랑이사나무 언덕'에서나마 그의 애국 애족 정신을 기리고자 했다. 광주 독립 운동가들의 항일 운동에 관해 쓴 저서 '호랑이사나무 언덕'에서 최명준이란 이름으로 나온 최상현은 주요한 역할을 한다. 필자는 신문 보도 자료에 나온 흥학관 기사를 살펴봄으로써 숨겨진 독립운동가와 역사 속에 묻힌 흥학관을 알리고 싶

은 생각이 들었다. 1914년에 발간된 '광주읍지'의 '학교' 편에 보면 "흥학관은 서광산정에 있으며, 최명구가 청년들을 위한 수양회장으로 세운 것이다"라고 쓰여 있다.

삼일 만세 운동이 큰 성과 없이 끝난 후 실의에 빠진 광주 전라민들을 위해 1921년 최명구는 흥학관 부지에 200여평의 새 건물을 지었다. 1924년 최명구가 세상을 떠나자 장남인 최상현이 1942년까지 흥학관을 운영했다. 최상현은 흥학관을 운영하며 민족 계몽 운동에 힘썼고 거액의 빈민 구제 자금과 독립 운동 자금을 기부했다. 또한 익명으로 각 학교에 기부금을 냈고 오방 최홍중이 소개한 손창식을 일본 동경으로 유학을 보내주기도 했다.

1921년 10월 2일 동아일보 사회면에는 "조선노동공제회 광주지부에서는 1921년 10월 1일부터 노동 야학을 개시하였는데 장소는 흥학관이요...라"는 기사가 실렸다. 또한 1927년 10월 29일 동아일보 생활·문화면에서는 흥학관 사립 보통학교와 누문리 유치원에서 학습품을 무료로 제공했다는 기사가 담겼다. 당시 기사를 살펴보면 흥학관에는 사립 보통학교와 고등과 감습소, 노동 야학, 여성 야학교 등이 있었다.

학생 독립 운동의 주역 왕재일은 흥학관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흥학관 야학에서 공부하여 광주 고등 보통학교(현 광주제일고등학교)에 입학했다고 회고했다. 선진회 회원들을 비롯해 광주 학생 독립 운동의 주역들은 흥학관에서 열린 강연을 듣고 민족 의식을 깨웠고 애국 애족 정신을 길렀다.

흥학관은 조선노동공제회 광주지부 사무실, 선진회 광주지부 사무실 그리고 노동 쟁의 장소로 사용되기도 했다. 광주와 전라 일대 청년들이 눈만 뜨면 흥학관에 와서는 독서회나 노동자 권의 보호에 관한 토론회나 하면서 문지방이 닳도록 드나들고, 야구 대회다 권투 대회다 하며 물러와서는 활개를 치고 다니니 일제의 입장에서 흥학관은 눈엣가시와 같은 곳이었다.

이상재, 안재홍 등 항일 지식인들이 흥학관에 와서 강연을 할 때면 광주 전라 일대에서 청년들이 몰려와 인산인해를 이루었는데, 이럴 땐 어김없이 행사 전에 정·사복 차림의 일인 경찰들이 들이닥쳐 흥학관 앞을 짝 매우며 감시하곤 했다. 강연 내용에서 조금이라도 독립 운동에 관한 강연이 나오면 인식 경관은 곧바로 "강연 중지!" 하고 외치며 해산 명령을 내렸다. 그러면 강연은 그것으로 끝낼 수

밖에 없었고 '독립' 운운했다는 죄목으로 현장에서 끌려가는 연사도 있었다고 독립운동가 최한영은 회고했다.

일본 당국이 흥학관의 일을 사사건건 간섭을 하자 최상현은 일제의 맑은 귀담아 듣지 않겠다는 뜻으로 호를 일봉(一鵬)이라 지었다. 일본 당국의 횡포에도 불구하고 흥학관이 민족 계몽 운동을 계속해 나가자 일제는 최상현에게 핍박을 가했다.

최상현이 일제에 비협조적이라 급기야는 1944년 그의 둘째 아들 최정업(1923-1994)을 학도병으로 끌고 갔다. 이때문에 마음의 병을 얻은 최상현은 해방되기 몇 달 전에 세상을 뜨고 만다. 2006년 일제 강점하 강제 동원 피해 진상규명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통지서를 최정업의 장남 최준성에게 보냈다. '최정업은 1944년 경 일제에 의해 강제 동원되어 육군 특설 수상 근무 제122 중대에서 복무하고 귀환한 사실이 인정됨.'

폭풍처럼 몰아치는 제국주의의 횡포 속에서도 시대의 등불을 쫓듯이 지켜나갔던 흥학관. 민족 계몽 운동과 학생 독립 운동의 요람으로서 정신적 기둥이 되었던 흥학관 정신이 오늘날에도 이어져 민족 화합과 부흥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1월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체육부 220-0633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예향부 220-0692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사진부 220-0694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